

찬불가, 크로스오버로 무대에 서다

무소의 뿔 정기공연
7월 24일 새천년홀에서

찬불가가 국악, 클래식, 가요 등과 만나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시도한다. 불교음악 공동체 '무소의 뿔' 제 4회 정기공연이 7월 24일 저녁 7시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열린다.

'무소의 뿔'은 작곡가 이진구 씨를 총감독으로 수안 스님, 정목 스님, 권성혜 씨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공동체다. 지난 2012년 음악의 대중화와 다양화를 위해 미국에서 창단되었으며 미국 뉴욕의 원각사와 불광선원에서 공연했다. 2014년도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기공연을 펼친 바 있다.



불교음악공동체 '무소의 뿔' 제 4회 정기공연이 7월 24일 저녁 7시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공연 장면.

1부는 법패와 서양음악의 만남

한마음선원합창단 음성공양도

2부, 부처님일대기 뮤지컬 중 선별

9년간 준비... 韓·英버전 제작

한 작곡가 이진구 씨는 "법패는 3대 성악곡 중 하나로 매우 훌륭한 음악이지만 불교의식이 아니면 듣기가 힘든 곡이다. 불교의 소리를 서양음악 혹은 판소리와 결합해 대중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산사의 새벽은 신법패 운동을 하는 정목 스님과 함께 소프라노 이현주 씨가 참여해 새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연의 절정에 다다른 2부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수석단원이며 한국금연구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정립 해금연주가의 연주로 시작된다. 또한 부처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제작 중인 'Under the Bohi Tree' 중에서 6곡을 선별해 보여준다. 특히 KBS 남자의 자객에서 박달린 음악감독과 함께 합창단을 지도했던 뮤지컬 배우 최재립을 비롯해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방글아, 바리톤 이상준이 무대에 함께 오른다.

이진구 씨는 "9년 전부터 준비해온 공연이다. 현재 영어 버전과 한국 버전으로 이원화해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즈음 완성해 미국에서 먼저 공연을 갖고 한국 공연

에서도 공연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안 스님의 작사에 이진구 씨가 곡을 붙인 '백련' '머물고 싶은 그곳' '언제나 어디서나' 등은 찬불가에 트로트 발라드 왈츠풍을 더한 곡으로 눈길을 끈다. 수안 스님은 "찬불가지만 불교용어는 넣지 않았다. 다만 가사 안에 불교적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불자 비불자 모두가 함께하며 편하게 듣고 불법의 진리를 배웠으면 한다"며 공연의 의미를 전했다.

제4회 무소의 뿔 정기공연의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으로 무소의 뿔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공연 당일 현장에서도 판매된다. (010)4759-053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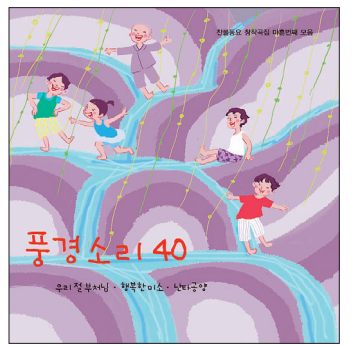
찬불동요로 천진불에게 음성포교 20년

풍경소리, 40집 앨범 '눈길'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좋은 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 앨범 '풍경소리 40집'을 발표해 화제다. 1996년 1집을 시작으로 풍경소리는 매년 두 장씩 여름 겨울 불교학교를 맞는 어린이들을 위해 발표한 것이 벌써 마흔번째다.

늘 새로운 곡을 작사작곡해 찬불동요 발전에 기여해온 점도 눈길을 끈다.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조계사 어린이법회를 지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곡을 만들게 되었고 1년 정도 준비해 1996년 첫 음반을 내게 되었다. 찬불동요라는 단일음반 시리즈로 40집이 나온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저 보람되고 좋아서 20년 동안 꾸준히 만들다 보니 여기까지 온 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 또한 일선의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 각종 행사 및 산사음악회와 발표회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다. 지금까지 발표된 곡만 600여 곡이며 70여 명의 작곡자들이 참여했다. 카세트테이프로 시작해 현재의 CD 음반으로 변화되며 20여년 변천사를 음반 표지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이실장은 "그간 고비도 많았다. 경제적 부분이 가장 컸는데 특히 10집을 만들 때는 너무 힘들어 그만 두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사정을 들은 윤문사 스님들이 성금 500만원을 모아주어 다시 음반을 낸 사연도 있다. 그동안 조계종 포교원, 구인사, 진각종 등 곳곳에서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로 발표된 풍경소리 40집 앨범 표지.

1996년부터 꾸준히 음반 발표

11월경 창립 20주년 음악회 예정

로 참여하는 등 풍경소리 음반은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문학가 김경상 선생의 작사부터, 반영규, 황학현, 지금은 타계한 박동원·유익상 선생 등 다양한 불자 음악인들의 참여도 풍경소리가 40집까지 나오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에 풍경소리는 11월경 풍경소리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풍경소리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풍경소리의 취지를 잘 알릴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이번엔 발표된 풍경소리 40집에도 천진불들을 위한 다양한 찬불가들이 담겼다. 부처님을 사랑하고 절을 아끼는 천진불들의 마음을 그린 '우리 절 부처님', 부처님의 지혜와 법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나타낸 '행복한 미소', 축제처럼 즐기는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탄타공양' 등 총 8곡의 노래와 반주음악(MR)이 담았다.

정혜숙 기자

천태종, 제3회 원각서예문인화대전 공모 요강 발표

문인화 부문 확대·8월 2일부터 접수

5회 사진공모전도 개최, 접수는 10월 15일까지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이 제3회 원각서예문인화대전과 제5회 불교사진공모전을 갖는다. 원각서예문인화대전은 문인화 부문을 추가 올해부터 '원각서예문인화대전'으로 치러진다. 공모부문은 한글·한문·국한문·소자·훈서·사경·문인화 등 7개 부문이며,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규격은 전지(가로70cm×세로135cm), 반절지(가로35cm×세로135cm)이며, 사경은 글자수가 200자 이상이어야 한다. 출품 자격은 국적이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다. 단 미협, 서협, 서가협 초대작가가 상은 제외다.

우수상(금강신문사장상) 10명에는 상금 각 100만원과 상패 △장려상 15명에는 상금 각 30만원. 특선과 입선에는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된다. 심사결과는 9월 5일을 전후해 천태종과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한다. 작품은 8월 24일~28일(우편 도착일 기준)까지 서울사무소(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허브 102동 308호)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 및 수상 작품 전시회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천태종은 또 제5회 불교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작은 불교를 소재로 한 국내·외 미발표작품으로, 작품규격은 디지털 파일 3024×2016픽셀 이상의 JPEG파일(최

소 6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출품수는 1인 3점 이내이며 작품명·성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ggbsns@ggbsn.co.kr) 또는 CD로 접수(천태종 서울사무소)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0월 22일 금강신문 홈페이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www.pask.net)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 초 전시회는 12월 2일~8일(7일 휴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금상(천태종 총정상) 1명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 △은상 2명(천태종 총무원장상)에는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동상(천태종 종의회의장상) 3명에는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가작 5명에는 상패와 상금 각 30만원 △장려(금강신문사장상) 5명에는 상패와 상금 각 10만원 △입선(총 출품수 20% 이내)에는 상장이 수여된다. (02)723-1559 정혜숙 기자

BTN, 20년 성장 발전 담은 社史 발간

스토리텔링 형식의 7개 테마로 구성



BTN불교TV는 개국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역사를 담은 사사(社史)를 발간했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개국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역사를 담은 사사(社史)를 발간했다. BTN은 국내 최초 불교영상포털로서 1995년 3월 1일 개국하여 올해 3월 20주년을 맞았다. 이번엔 발간한 사사는 '20년의 인연, 100

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제작됐으며, 통사(History)형태가 아닌, 7개의 주제별 테마로 묶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나다-보다-알다-걷다-올다-품다-날다'로 이루어진 7개의 테마는 부처님의 탄생 첫 일곱 걸음을 뜻하는 것으로 BTN의탄

생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엮었다. 이번 20년 사사 발간에 대해, 구본일 대표이사는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소중한 사료·증언·기록물들을 2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 체계적으로 정리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 BTN불교TV가 이번 사사편찬을 통해 반성과 자기성찰, 한국불교대표방송으로 성장한 현재의 모습과 다가올 BTN의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BTN 20년사는 연혁뿐만 아니라 특별한 터뷰와 방송제작 에피소드, 인사이트 스토리 등 BTN 임직원들의 24시간 방송제작의 생생한 경험담을 넣어 사실성을 높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본책과 별책(영문요약판)으로 구성된 사사는 각종 불교 단체 및 기관과 전국 공공 및 대학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수행자 진귀(眞歸)와 차 한잔의 친견만 해도 말기암의 암성통증과 병의 등등 일체고통 들이,...

어떤이는 줄어들고 어떤이는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불신(不信)의 마음벽에 갇힌 말법시대에 과연 이런일들을 믿을수 있는지? 백천만겁난조우의 진귀한 인연이로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강좌

-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 강의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제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강좌및법회를 개설할 전국의 불교대학및 사찰은 전화 접수 하세요.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주 1회 강좌 / 법회는 월 1회)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터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화엄경 수행센터 문의 ☎ (대구) 1899-9532